

해수부 장관, 티엔에스 캐쳐호 전복사고 수색 상황 점검 및 수습에 만전 지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2일(수) 발생한 티엔에스 캐쳐호(286톤, 견인용 예선, 선원 8명)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부산해양경찰서를 찾아 실종자 수색과 선박 전복 상황을 점검하였다.

황 장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수색 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 라며, “가족 분들께는 수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 고 지시하였다.

이후, 황 장관은 해양수산부에 복귀하여 종합상황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9월 2일 15시 05분부터 해양 선박사고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51-773-5810)
		담당자	사무관	최종영 (051-773-5818)